

# 開 會 辭

金 哲 洙\*

아직도 봄답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各 大學의 卒業式과 함께 新學期 開學을 앞두고 있는 요즘,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가 주최하는 “國家試驗制度的 改善方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趙完圭 總長님과 各 大學 學長님, 여러 教授님들, 法曹界人士 여러분, 總務處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社會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近代化를 위한 노력이 結實을 이루어가고, 이에 따라 民主化를 위한 노력이 社會의 諸分野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에 발맞추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國家試驗制度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制度的 모색을 위하여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는 그 동안 司法試驗과 行政試驗制度的 改善을 위하여 여러차례 세미나를 開催해 왔습니다. 1964년에 法學研究所가 開設된 뒤 全國法學教授大會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韓國法學教授會를 결성하였습니다. 1972년에는 法學教育에 관한 세미나를 開催하였고, 1985년에는 韓國의 法學教育과 考試制度에 관한 세미나를 開催하였고 1988년에는 法曹先進化와 法曹人口에 관한 세미나를 開催하였습니다. 그 동안 이 結果를 모아 「法學教育과 司法制度改革」이라는 책을 出版하였습니다.

國家發展을 위하여서는 公務員의 役割이 至大하다는 것은 누구나 否認할 수 없을 것입니다. 國家社會의 發展을 위하여 國民에 대한 奉仕者인 公務員의 選拔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國家試驗의 科目을 어떻게 할 것인가, 選拔人員을 얼마나 할 것인가, 研修機構를 어디로 할 것이냐도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國家試驗制度는 몇 번의 제도적인 변천이 있었습니다. 司法試驗의 경우에는 과거 高等考試司法科制度에서 '60년대 初에 司法試驗으로 바뀌었고, 그 응시자격이나 受驗科目에서도 많은 변천이 있었으며, '80년대 初에는 科目변경과 함께 選拔人員의 대폭적인 증원이 있었습니다. 行政高試와 外務高試의 경우에도 여러 번의 변화가 있었고, 다른 國家公務員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法學研究所長

이제 오늘날과 같은 民主化의 時代에서 國家試驗制度 또한 國民的 合意에 따른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制度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세미나의 기본적 基調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미나에서는 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司法試驗을 포함한 國家試驗制度에서 受驗資格의 문제, 즉 年齡制限이나 學力制限, 應試回數 制限의 문제, 각 試驗의 受驗科目의 문제, 選拔人員의 문제, 試驗施行機關의 문제, 試驗方法의 문제, 試驗의 性格문제 등 國家試驗制度 전반에 걸쳐 논의가 될 것이며, 아울러 합격자들에 대한 研修過程에 대하여서도 언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國家試驗制度는 制度 그 자체뿐만 아니라 法科大學의 教育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大學의 法學教育이 단순한 教養教育으로 그친 감이 없지 아니하고 法曹專門人의 양성에 미흡했던 점을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公權力을 담당하는 國家公務員의 경우에도 진정한 法治主義의 실현을 위하여 法學的 素養과 知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때 法學教育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로 참석해 주신 네 분의 발표자들께서는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專門的인 識見과 經驗을 가진 분들로서 앞으로의 國家試驗制度의 바람직한 改善方向에 대하여 심도깊은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가 總務處에서 용역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國家試驗의 改善에 대한 研究事業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이 세미나의 發表, 討論의 結果를 참고하고, 國家試驗制度에 대한 전반적인 意見調查를 거친 다음, 최종적인 研究所의 의견을 집약할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개최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